



미 농무관 보고서: 불충분한 강수량으로 인해 브라질 대두 생산량 하향 조정

(2013.3.6. 로이터통신)

원제: Inadequate rainfall could lower Brazil soybean production hed -attache - RTRS
06-Mar-2013 05:44

브라질소재 미 농무관보고서에 의하면 바히아(Bahia), 마투구루수두술(Mato Grosso do Sul) 일부지역에서 대두의 결정적 생육단계인 결협기(pod-filling) 동안 강수량이 부족하여 브라질 생산량 전망치가 8,25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었다.

2012/13년 브라질 수확은 약 40% 완료되었으며 이는 5년 평균대비 약 15%p 앞선 속도이다. 브라질 파라나강(Parana)에 소재한 브라질 2위의 곡물수출항에서 체선기간은 현재 최대 50일이며 향후 몇 개월 뒤에는 60일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. 또한 트럭을 통한 육로운송비용은 전년대비 25~50% 인상되었다. 이는 부분적으로는 트럭운행시간을 제한한 정부의 신규법령으로 인한 것이다. 현재 3월 15일까지 연기된 항만노동자들의 파업은 수출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.

붙임: 2월 28일 발표된 브라질 농무관보고서(GAIN Report Number: BR0904) 일부내용

■ 이른 수확한 대두 비로 인해 품질 저하

브라질 생산농가들은 2기작 옥수수를 늦지 않게 파종하기 위해 대두의 빠른 수확을 선호한다. 마투구루수(Mato Grosso)와 파라나(Parana)에서 일찍 수확한 대두 중 일부는 수확기에 내린 비와 높은 습도(20~30%)로 인해 발효가 진행되고 있어 상품성이 소멸되었다. 수확기에 이상적인 습도는 14%이다. 마투구루수(Mato Grosso)에는 대두건조시설이 부족하여 상황이 악화되었다. 브라질 곡물엘리베이터에서는 발효된 대두가 전체 물량의 8%를 넘으면 취급하지 않으므로 일부 생산농가들은 곡물엘리베이터로의 인도가 어려워진 상황이다. 일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전한 대두를 구입하여 발효대두가 섞인 물량과 혼합을 하고 있다.

■ 브라질 대두 수출량 기록적인 수준으로 전망

브라질 교역업자들은 유통연도 초반의 수출속도가 느린 수준이지만 9월과 10월 동안 미국 신곡보다 브라질산 대두가 가격경쟁력이 더 높을 경우 수출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

다. 브라질에서는 대두가공품 수익률이 감소하여 대두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. 2012/13년 브라질 대두가공품 생산량은 이전 전망치대비 50만 톤 감소한 3,80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, 이는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이다. 또한 브라질 레알화의 환율이 지속적으로 R\$2.00/달러 수준이어서 수출에 유리하다.